

지역 소식통

부안, 가축 폭염피해 대비 축산농가 지원 사업 추진

부안군은 관내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폭염 대비 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 등 폭염대비 지원 사업을 수립 추진한다.

군은 올해 폭염일수가 20~25일로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사육피해와 생산성 저하 등이 예상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7천여만원을 투입해 환풍기, 제빙기, 안개분무기, 면역증강제 지원 등을 통해 다가올 폭염을 대비하여 사전대비 하도록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하여 폭염 및 각종 재해보로부터 안정적으로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의회, 입사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제262회 정읍시의회 입사회를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입사회 안전심사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 소관 고경윤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정읍군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 이도형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수정가결, 정읍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결제시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 됐다.

한편, 고경윤의원이 대표 발의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 포함 촉구 건의안'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학교와 음식점에 식재료 납품이 어려워진 농가, 졸업·입학 비대면으로 매출이 줄어든 화훼농가, 농촌 체험 위축으로 경제난을 겪는 농촌체험마을 등 생계 위협을 받는 농민들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역사문화 관광도시 도약

'고창갯벌' 7월 등재 땀 유네스코 세계유산 5관왕 석탄정 등 4건 도지정문화재 지정돼... 행정력 집중

'품격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고창군이 지역 문화유산의 미래역량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타 지역과는 달리 산과 구릉지 등 수직적 경관을 함께 볼 수 있어 주목받는 '고창갯벌'은 오는 7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고창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되면 고창군은 유네스코 중요 프로그램 4개분야인 문화유산, 자연유산, 인류무형유산(농악, 판소리)을 보유하게 되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까지 5관왕을 완성하게 된다.

고창군의 유네스코 중요프로그램 그랜드슬램 달성은 지역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내에 국한된 범주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변모할 중요 기회로 여겨진다.

특히 고창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작업은 '고창갯벌'에서 그치지 않는다. 고창 봉덕리고분(사적 제531호)을 중심으로 한 '마한 역사문화유적'과 '상금리 고인돌군'의 세계유산 등재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향토문화유산은 도지정문화재로, 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승격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민선 7기들어 '고창 선운사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좌상(보물

제2081호)'과 '고창 선운사 만세루(보물 제2065호)'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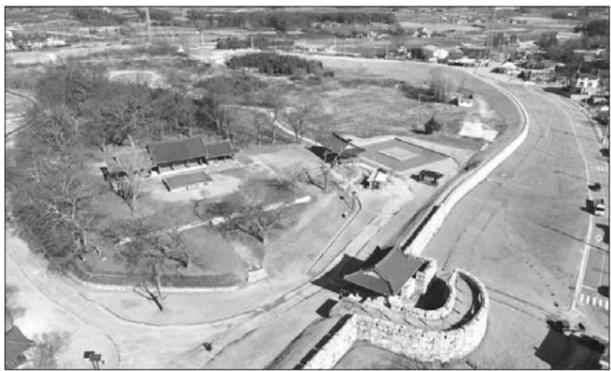
'고창 부곡리 고인돌(유형 제265호)'과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좌상'과 '관속 및 복장유물(유형 제265호)' 등 2점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됐고, 지난 2월에는 봉덕리고분에서 발굴된 금동신발이 국가지정 보물로, 석탄정 등 4건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창군은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관광지원화에도 힘쓰고 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무장읍성 복원사업은 집중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올 연말 성과 전구간 복원 완료로 앞두고 있다.

최근 새로 마련된 무장읍성 종합정비계획은 11점이 무더기로 발굴된 비격진천리 활용을 핵심과제로 무장읍성 관광지원화 등 문화재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무장읍성은 인근의 선운사, 공음 청보리밭 등 주요관광지를 연계하는 거점 관광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고려 초기청자 유적지인 '고창 용계리청자유지(사적 제345호)'를 인근의 운곡 탐사트습지, 고창 고인돌군과 연계해 고창군의 문화유산을 한곳에서 보고,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유적 체험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문화유산 발굴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역사문화도시 고창을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무장읍성 복원' 과정에 11점이 무더기로 발굴된 '비격진천리' 활용을 핵심과제로 선운사·공음 청보리밭 등 인근 주요 관광지를 잇는 거점 관광지지원화 등 무더기 활용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정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도내 최초 1243명 대상, 사고 시 최고 3천만원 보상

정읍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내 최초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상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2만 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1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자부담했던 것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14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43명이 상해사고 시 최고 3천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이며, 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선 7기 들어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수당 지급과 국내·외 연수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올해 출생 아동 첫 통장 만들면 축하금 지원

시-MG 정읍새마을금고 업무협약... 1인당 10만원 입금

정읍시가 장기적인 저출산 현상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뿐이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일 MG 정읍새마을금고와 '우리 아이 생애 첫 통장 개설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 해당 금고에서 생애 첫 통장 발급 시 출생 축하금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출생아

명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1인당 출생 축하금 10만원을 지원(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 통장 개설 방법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출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부모 신분증, 부모 또는 아이 도장)를 지참해 정읍새마을금고(본점 063-535-1341, 시가지점 063-535-1345, 수성점 063-531-6440)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많은 출생 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김석주 이사는 "MG 정읍새마을금고는 지역기업으로서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축하금 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 공헌 활동 분야를 더욱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치매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만든다

정읍 치매안심센터-한전 전북서부지사 협약 체결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8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와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전기 화재에 취약한 치매 환자들에게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안심센터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는 협약을 통해 치매 안

심마을과 고위험 치매 가정, 독거노인 치매 환자 가정의 전기위험 요소 제거 활동으로 치매 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상자는 3월부터 6월까지 치매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을 파악하고, 면담을 통한 고충 수렴 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 노후 전기 설비 안전 점검과 노후 시설교체, 전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가 지난 19일 군의회 의정실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차남준 의원(대표위원)과 강성모, 정만수, 김수영, 김영환 등 재정 및 회계분야에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 4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7일까지 20일간 고창군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결산 결과는 오는 6월에 열리게 될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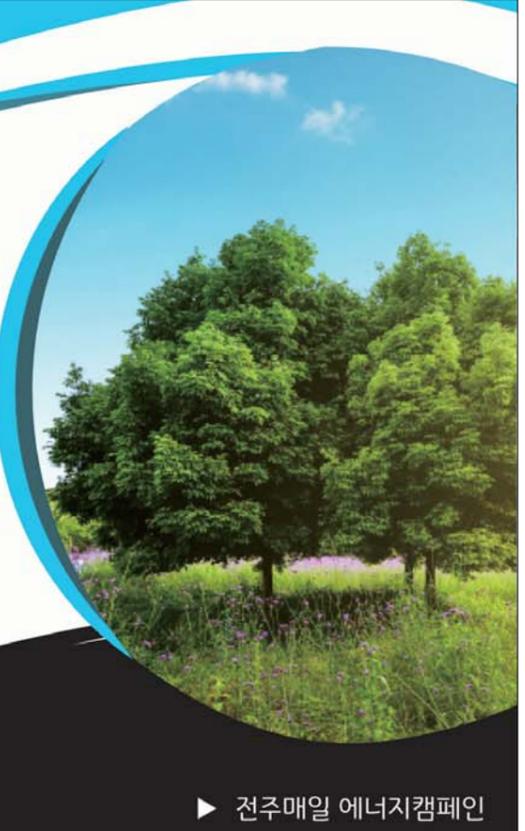
최인규 의장은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에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직 수행에 감사하다"며,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된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건전한 재정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차남준 대표위원은 "매년 반복되는 통과례로서의 결산검사가 아닌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운영의 적법성, 예산의 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